"헌혈, 가장 쉽고도 어려워… 고귀한 나눔"

다솜헌혈봉사회 최승훈씨 '최고명예대장'
헌혈 300회 달성… 1986년 이후 40년간

제주의 한 헌혈봉사회원이 헌혈 300회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13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제주다솜헌혈봉사회 고문인 최승훈(60)씨는 지난 10일 헌혈 30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패인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헌혈유공패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징으로,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이 수여된다.

최 씨는 1986년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당시 처음 헌혈을 경험한 이후 40년간 나눔을 실천해왔다.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 등으로 한동안 헌혈에서 멀어진 적이 있었다는 그는 이후 고향 제주로 돌아온 뒤 뉴스에서 '제주지역의 혈액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헌혈을 시작했다고 했다.

헌혈의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최 씨는 뜻을 함께하는 헌혈자들을 모아 2017년 3월 '제주다솜헌혈봉사회'를 결성해 도내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봉사회 고문을 맡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낮 시간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도 주말과 여유시간을 활용해 헌혈의집에서 헌혈자 에스코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씨는 "헌혈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고귀하고 소중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록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더 헌혈버스나 헌혈의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구암굴사 백혈병·소아암 지원 성금 기탁

구암굴사(주지 해조스님)는 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자와 난치병 학생들을 돕기 위한 성금 7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 정태근)에 전달했다.

구암굴사는 매년 적십자사를 통해 국내외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자비를 실천해 오고 있다. 주지 해조스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불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의료원장에 이정열 의학 박사

제주의료원 신임 원장에 국군대전병원 병원장 등을 지낸 이정열(사진) 의학박사가 10일 임명됐다.

제주도의료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5명이 지원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 중 이정열 원장이 최종 선정됐다.

이정열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중앙보훈병원 병원장, 국군대전병원 병원장,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UAE) 병원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원장 임기는 2029년 9월 9일까지 3년 간이다.

이 신임 원장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향상, 조직 내 소통협력,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청소년, 日기노카와시서 홈스테이

서귀포시가 10~13일 3박 4일간 일본 기노카와시를 방문해 '2026년 서귀포시-일본 기노카와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했다.

이번 교류에는 서귀포시 지역 10개 중학교 학생 21명과 인솔자 5명 등 2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우치다중학교를 방문해 환영식에 이어 학년별 교실에서 현지 학생들과 공동수업에 참여하고 급식을 함께하며 일본의 학교생활을 체험했다. 또한 지난 8월 서귀포에서 홈스테이를 함께했던 짝꿍과 다시 만나 각 가정으로 이동해 1박 2일간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일본 가정의 일상과 생활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4·3유족회 서귀지부 전남 역사문화 순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회장 김계담)는 지난 8~10일 전라남도 일대에서 도외 역사문화 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순례에는 36명이 참여해 5·18민주화운동과 여순10·19사건의 현장을 둘러보며 제주4·3의 역사와 함께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의 아픔을 되새겼다.

제주감귤연합회 장애인체전서 홍보관 운영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백성익 효돈농협 조합장)와 농협제주본부(본부장 이춘협)는 지난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제주감귤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과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감귤 시식행사와 함께 온라인 채널 구독 이벤트와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

제주소방서·자율소방대 전통시장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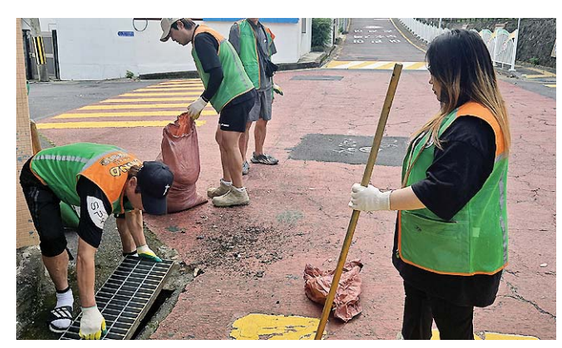
제주소방서(서장 고정훈)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과 9일 제주동문시장 및 서문시장에서 자율소방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제주지방조달청 장애인 재활시설에 물품

제주지방조달청(청장 김수열)은 지난 11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아가곱드래(원장 이민숙)를 방문해 추석 명절맞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아라온해수사우나 이호동에 이용권 기부

아라온해수사우나(대표 장승남)는 지난 9일 제주시 이호동 지역 내 참전유공자와 취약계층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사우나 이용권 1116매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송산동자율방재단 지역 침수 예방 작업

서귀포시 송산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강대흥)은 지난 10일 단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상습 침수지역인 서귀동 어촌계, 칠십리로, 마을 배수로 및 집수구 등에서 침수 예방 작업을 실시했다.